

# 중생구제의 간절한 염원 다라니에 담아

## 고판화 박물관 '판화로 보는 아시아 부적의 세계'展

설을 앞두고 다라니는 물론 아시아의 부적과 판화 등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이색 전시가 열린다. 치악산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은 2월 15일~5월 10일 '소월성취의 길- 판화로 보는 아시아 부적의 세계'전을 연다.

이 전시에는 대중들의 간절한 바람을 판각 문화로 승화시킨 한국, 중국, 일본, 티베트, 몽골, 네팔 등의 부적 목판, 인쇄판화, 서책 등 총 1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이중에서도 특히, 정해성 사비관을 불상과 함께 팔찌 속에서 출토된 '범문 다라니 경주'는 주목된다. 당나라 시대 유물로 추정되는 범문 다라니 경주(梵文陀羅尼經) 중심에는 목서가 쓰여 있는데, '제자 고○○는 도솔천궁에 태어나 미륵보살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고판화박물관 한선학 관장은 "고대에는 스님들이나 불자들이 왕생극락을 발원하고자 팔찌(비천臂釧)에 다라니를 넣어, 시

신과 함께 매장하는 풍습이 있었다. 이 다라니 목서를 쓴 발원자는 미륵보살로 태어나 중생구제를 발원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 불자들이기보다는 스님이었을 확률이 높다. 따라서 이는 고대 스님들의 간절한 발원이 생생히 남아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설명한다.

이 고판화박물관은 5월 15일 개최하는 '6회 고판화 국제 학술대회'에서 서지학과 고판화에 권위 있는 세계 학자인 고바야시 교수(일본 소피아대), 남권희 교수(경북대)와 중국학자들을 초대해 범어 다라니를 조사한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다라니가 들어 있는 은제 '경통과 경각' (고려시대)도 소개된다. 한선학 관장은 "고려시대에는 경통을 만들어 땅속에 묻고 경통(經塚)을 만들었던 풍습이 있다. 여기에는 미륵이 출현할 때까지 불전을 보존하고자 하는 발원이 담겼다. 높이 2.4cm · 너비 1.2cm · 두께 0.6cm의 손가락

한마디 정도 크기의 경통에 다라니를 넣었는데 이는 매우 희귀한 자료라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밖에도 불교와 도교에 민간신앙이 결합된 조선시대 다라니에는 국한문 혼용 문자와 범어가 사용되었다. 또한 죽은 넋을

### 唐 '범문 다라니 경주' 공개

### '미륵보살' 왕생 발원 실어

### 한·중·일·티베트 등 부적 및 목판

### 2월 15일부터 100여 점 전시

제도(淸度)하고 재난에서부터 인간을 구원한다는 '태을구고천존(동극청화대제)'의 '동극청화구룡부 천관사복' 목판과 인쇄판화도 소개된다.

한국 대표 민간 부적으로 인간의 모든 액을 소멸하고 만복이 깃들게 한다는 '백삭소멸만복부'와 삼재부, 산신을 상징하는



① 당나라 시대의 유물로 추정되는 '범문 다라니 경주'  
② 다라니의 목서로 '제자 고○○는 도솔천궁에 태어나 미륵보살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③ 다라니가 들어 있는 고려시대 은제 '경통과 경각'

호랑이 부적인 금관장구부와 산신부도 전시된다. 일본의 삼다라니 목판, 티베트 몽골 네팔 부적으로는 길상다라니 목판 등이 선보이며 '타르초' 20여 점이 소개된다.

'퐁마'라 불리는 이 기도깃발은 티베트 몽골 네팔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바람이 소원을 실고 하늘로 올라가 신에게 전해준다는 전설이 담겼다.

고판화박물관 한선학 관장은 "대중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작지만 큰 울림이 있는

부적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 모두 마음의 위안을 얻어 새롭게 도약하고 새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고 전했다. (033) 761-7885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변상도 사불하며 부처님 마음 닦아가요

## 해인사 <그림으로 만나는...> 출간

일상 속에서 부처님의 모습을 따라 그리며 마음공부할 수 있는 컬러링북이 출간돼 주목된다. 해인사출판부가 화엄경변상도 80장의 인경본을 <그림으로 만나는 대방광불화엄경 80변상도>로 내놓았다.

컬러링북이 베스트셀러 1위로 오를 만큼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해인사출판부가 불교의 변상도를 컬러링북으로 내놓은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특히, 이 책은 불자들에게는 사불을 통한 수행을, 일반인들에게는 컬러링북으로 활용돼 마음의 안정을 찾아줄 예정이다.

해인사출판부는 "사불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불교 수행 중 하나다. 의식적으로

한군데 집중을 하면 생각이 끊어져 심리적인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선을 따라 부처님의 모습을 그리는 순간 오롯이 집중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망상을 버리고 일상생활에서 깨어 있도록 하는 연습이 가능한 것이다.

### 대방광불화엄경 80변상도

### 컬러링북으로 활용 마음공부

특히 불자들에게는 부처님의 모습을 따라 그리며 부처님을 닦겠다는 서원을 세울 수도 있어 여러 방면에서 활용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다.

170마로 구성된 책은 왼쪽 편에는 변상

도 작품을 배치하고 오른쪽 편에는 변상도 원본을 실어 독자들이 사불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변상도 각 장의 하단에는 간략한 설명을 덧붙여놓았는데 이는 화엄경의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또한 첫 번째 장에는 화엄경 80변상도의 원본을 축소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해인사출판부는 "세계문화유산이자 국보206호인 고려대장경 중 시간판전에 봉안된 화엄경 변상도 80장을 소장하는 가치와 더불어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함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반 서점과 해인사출판부 등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판매가는 60,000원이다. (055)934-3111

정혜숙 기자



<그림으로 만나는 대방광불 화엄경> 내지. 왼쪽은 변상도 작품을 오른쪽에는 원본을 실어 사불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변상도 하단에는 간략한 설명도 덧붙여 놓았다.

# 원각사지 중심으로 조선 변혁의 바람이 불다

## 서울역사박물관 '탑골에서 부는 바람'展... 3월 29일까지

원각사지10층석탑이 우뚝 선 탑골공원, 지금은 어르신들의 쉼터 역할을 하는 이곳은 18세기 조선에 변화를 몰고 온 '백담파'의 근원지였다.

서울역사박물관(관장 강홍빈)은 1월 9일~3월 29일 역사문화특별전 '탑골에서 부는 바람'을 열고, 조선 변혁의 이끈 '백담파'의 작품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백담파의 대표작 박제가 <북학의>, 박지원(열하일기) 외 북학파 관련 자료 및 이덕무·박제가·유득공·이서구의 시를 담은 <한학견원집>, 유득공의 18세기 한양의 세시풍속지 <경도잡지> 등이 소개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탑동연첩'은 백담파의 근원지 '탑골'의 원각사지10층석탑을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현재 국보2호로 지정돼 있는 원각사지10층석탑은 조선 도성 한복판에서 당당히 자태를 뽐내던 탑이었다. 그 탑을 배경으로 연암 박지원을 비롯하여 18세기 북학파 지식인들이 이웃해 살며 '백담파'를 형성하였다.

백담파는 탑골에 살았던 박지원, 이덕무, 유득공, 서상수 등과 남산 자락에 살면서 이들과 교류하였던 홍대용, 박제가, 백동수로 대표된다. 이들은 당시 지배이념으



백담파의 근원지였던 탑골을 묘사한 '탑동연첩'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선명하게 묘사되어 있다.

### 18세기 북학파 백담파 형성

### 대표작 <북학의> <열하일기> 등 공개

### 원각사지 석탑 묘사 '탑동연첩' 눈길

로써 관념적 학문인 주자의 학설을 좇는 것을 거부, 민생에 도움이 되는 이용후생의 학문을 하고자 노력했다. 이에 청의 신문을 수용하여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했다.

이밖에도 전시회에서는 규장각 검서관을 지낸 백담파인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

이 지은 '성시전도시(城市全圖詩)'가 최초로 대규모 공개된다. 박물관 측은 성시전 도시에 대해 "백성들의 삶과 사회에 대한 관심이 누구보다 높았던 북학파 실학자들의 시각으로 노래한 작품"이라며 "역동적인 한양의 모습을 생생히 포착하였을 뿐 아니라 왕도(王都)의 모습도 대규모로 조감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물관은 북학파 실학자의 사상과 교류와 관계된 약 300점의 유물을 전시, 이와 관련 주요자료를 e-book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02)724-0274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생활밀착형 온라인 쇼핑몰** **무료 배송**

**칠성상회**  
02-879-2007

상품 문의 및 기타 사항  
**02-879-2007**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금계좌 안내 :  
신한 100-023-357023 (주)한메소프트

고세라 복사기(중고)  
A3~A6용지 사용가능  
팩스,복사,프린트 모두가능  
금액 : 950,000원

수행 중 찾아오는 피로와  
손발이부기,냉기 예방에 탁월한  
아시혈 패치(30매)  
금액 : 33,000원

수행에 지친 분들의 원기 회복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지리산 다슬기액기스  
한달분(80ml/60팩)  
금액 : 115,000원

멀리 있어도 함께이며  
미용과 진심을 전달합니다.  
3E' 근조 완판  
(지정 날짜시간에 배송가능)  
금액 : 100,000원

가정 오수세이  
**PREMIUM 카피트 매트**  
5차 재입고,매년 인기 상품  
올 겨울 따뜻하게 준비하세요.  
거실 온수파이 카피트 매트  
금액 : 330,000원

풍수총론(風水總論)  
이산 정태상선생님의 연구풍수학  
연구의 필경 (무료배송)  
금액 : 35,000원

**명품승복(가사전문)**

※ 광고 홍보기간 동안 할인해드립니다.

명품 승복을 경영하고 있는 저는 깊은 사찰 기도터에서 4박 5일 기도중 큰스님께서 흥가사를 수하시고 제게 상을주는 현상을 선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승복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발명특허 3맴 가사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스님들께 뛰어난 디자인과 월등히 저렴한 가격으로 가사를 드릴 수 있기에 지면을 통하여 인사드립니다.

반수가사 (3맴 가사) 특징

- 1 일반 기계가사와 달리 반수가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구슬)이 지나갈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 2 일반 기계가사와 달리 모양이 전통 삼삼으로 가사를 지었습니다.
- 3 수가사 보다 가격이 월등히 저렴하며, 고르게 삼삼이 되어 있어 디자인 모양으로도 뛰어나습니다.

명품승복 010-3258-3568 / 031)844-5233  
의정부시 의정부동 160번지 라동 23호 (제일시장 내)

**현대불교신문 구독문의**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협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02)2004-8200